

# 신안 도초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본격화 전남도, 84억 들여 부지 매입 나선다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업성 논란 지속

사업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파리(safari) 아일랜드'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는 8일 전남도가 제출한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분회로 넘겼다.

사파리 아일랜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94-3번지 외 483필지(118만7178㎡)에 야외 체험형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부지 중 사유지(100만3688㎡)를 미리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84억7900만원을 투입한다. 땅값이 오

르기 전 미리 부지를 사들였다가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팔아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추진 속도를 높여겠다는 의도다.

사파리 아일랜드는 '갤럭시 아일랜드(Galaxy Islands) 2차 계획'에 따라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섬 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기존 동물원 개념을 벗어나 자연환경 속에서 먹이사슬로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야생동물원 조성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1324억원으로, 2015년까지 사업비 대부분을 도비(1155억)로 충당하겠다는 애초 계획은 기 반시설(51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사업자(814억)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애초 명칭도 '동물의 섬'에서 '사파리 아일랜드'로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로 늦췄다.

하지만 대략 4인 가족이 2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데도, 육지와 차별화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연중 개장이 쉽지 않은 점(2011년 66일 풍랑주의보로 운항 불가) 때문에 사업성 여부를 놓고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성휘(목포1·민주) 의원은 "7억 원을 들인 타당성영역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지매입 계획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중국 자본과 국내 대기업 등 큰 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어떤 콘텐츠를 갖출 것이냐,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 남게 들어가고 배상과 관람비용을 포함

# 檢, 이상득 의원 보좌관 체포

### 靑 '권력형 비리' 의혹 잇따라 곤혹

###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출금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소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로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세법학원 김재홍 이사가 영입 정지위기에 빠진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구명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대 재단인 세법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서울대 설립자측과 학원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던 김 이사는 지난 4월 '서울대 학내 분쟁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국철 SLS 그룹회장 측으로부터 일본에서 술집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K 전 비서관이 동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이 SLS 측의 접대를 받고도 오히려 이 회장을 거짓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P 보좌관도 8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국철 SLS 회장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 수석비서관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측근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 구속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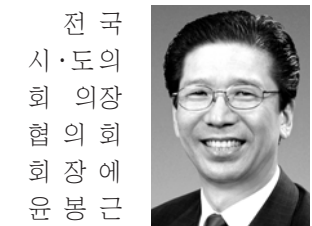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측근비리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1년2개월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속출하면서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어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아직 하산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 하반기 '고위층 비위 종합상황반'을 신설한데 이어 최근에는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윤봉근 시의회 의장 시도의장협 회장에



전국 시·도의 협의회 의장에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이 선출됐다.

윤 의장은 7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의 협의회 의장단 정기회에서 12대 의장으로 뽑혔다. 윤 의장은 이날 공동 회장으로 선출된 세종대 부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1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윤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이 어언 20년째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자치 의정 기반구축이 미흡하다"며 "회원 모두가 상생 소통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 협의회 의장협의회는 경기도 평택 가부전시장 화재현장에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과 관련, 처우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권일기자 cki@



### 현장으로 간 강운태 시장

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3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제9>

강운태 광주시장이 남구 대성시장 입구 도로개설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강 시장은

### 광주시 '지역산업진흥계획' 3년 연속 A등급

광주시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12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수립한 '2012년도 광주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난 10월 실시한 전국 13개 시·도 비

교평가에서 최우수 계획으로 선정되어 올해 25억6000만원에 이어 내년에도 30억6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2010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로, 광주시는 2012년도 총괄사업계획과 2010년도 과제수행 성과 등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사 사업간 통합을 통해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 노력 부문에서 다른 지역의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경부가 지난 1999년부터 비수도권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다. /홍행기기자 redplne@

### 후쿠시마 원전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

### 도쿄전력, 내년 3월 바다 방출 계획

### 일본 언론 보도

도쿄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등에 유입된 방사성 물질 오염수에서 세슘 흡착 장치 등으로 방사성

물질과 염분을 분리 처리한 뒤 내년 3월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최근 기업 단체에 설명했다.

지금은 방사성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지만 지하수 유입으로 양이 증가해 내년 3월엔 저장 탱크에 담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화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에는 현재 10만리 보관돼 있으며, 원전의 터빈 건물 지하 등에는 하

루 평균 400t의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는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여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하토리 이쿠히로(服部郁弘) 회장은 8일 도쿄전력을 방문해 "안이란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어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초 방사성 오염수 1만1천여톤을 어업계 및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바다에 방출했다가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 영화 '도가니' 10대 인권뉴스 2위

### 한진중 '희망버스' 1위

시민단체가 선정한 올 한해 '10대 인권뉴스' 1위로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 버스'가 뽑혔다.

전국 44개 인권단체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

망버스는 정리해고자를 1년 안에 복직시키는 노사 합의안을 이끌어 내 희망의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희망버스 선정 배경을 밝혔다.

2위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고발, 사회복귀사업법 개정을 의제화한 영화 '도가니'가 차지했고, 3위는 주요 20개국(G20) 포

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 강사와 대학생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뽑혔다.

4위는 집단해고에 반발한 흥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농성, 5위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처리와 경찰의 FTA 반대집회 진압이 선정됐다.

올해 앞 칼국수 전문점 '두리반' 철거 반대 투쟁은 6위에 올랐다. 10대 뉴스는 인권운동가 77명의 설문 결과를 거쳐 선정됐다. /연합뉴스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2009 DAENEUNG's Best Seller

포켓 사이즈 MP3 무로다운 효율적 학습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영어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영어백과

대신·인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가출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영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